

호주 高等教育改革의 배경과 國立統合體制

白 賢 基
(金烏工大 學長)

호주에서는 이른바 國立統合體制 운동을 통한 高等教育改革이 진행중이다. 이는 고등교육 기관을 地域性·類似性에 따라 통합시킴으로써 교육의 능률화와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각 기관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平等化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학문 영역과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최대의 多樣性·秀越性을 지닌 고등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1. 호주 高等教育의 배경과 發達

1) 大學의 位置

호주의 教育은 聯邦政府(commonwealth government)와 州·地方政府(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의 공동 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教育에 대한 주된 責任은 州政府가 지며 聯邦政府는 몇몇 작은 지방의 教育을 책임지는 이외에 전국의 자급 학교와 대학의 財政支援, 學生補助 및 國際教育의 책임을 진다. 연방 정부는 聯邦學校委員會(CSE: Commonwealth Schools Commission)와 聯邦高等教育委員會(CTEC: Commonwealth Tertiary Education System) 및 高等教育 類型別 委員會(綜合大, CAE: 高等教育大學 및 TAFE: 專門教育大學) 등 일련의 協議會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

교육 정책을 수립·조정한다.

호주 教育의 기본 단계는 6~15 세까지 10 년간, 즉 中等教育 수료 정도까지 義務教育을 받도록 되어 있다. 學校制度는 유치원(1년), 초등학교(6년), 중학교(4년), 고등학교(2년), 그리고 대학(3년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공·私立 이원제로 운영된다. 이 곳에서는 教育이 國家의 가장 중요한 機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改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체로 2월말 또는 3월초부터 11월까지 계속되는 高等教育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綜合大學(university)으로서 1988년 기준으로 21개교에 18만 여 명이 재학하고 있고, 둘째는 高等教育大學(CAE: College of Advanced Education)으로 71개교에

약 2백만 명이 재학중이며, 셋째 유형인 專門大學(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에는 1,200여 개교에 약 80만 명이 재학하며 주로 직업 과정 또는 준비 과정(preparatory course)을 이수하는데 추가적으로 40만 명 이상을 수용하여 취미 생활에 관한 成人教育課程을 이수시키고 있다(IDD, 1988).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高等教育은 처음 두 가지를 가리킨다(Baumgart, 1987). 후자의 두 유형 CSE와 TAFE에는 技術, 職業 및 一般 등 3가지 과정이 있으며 TAFE에는 成人教育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연방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비해 高等教育에 대해 주된 책임을 갖는다. 가령 1950년대에 고등교육 제정의 20%를 지원했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80%를 지원할 만큼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財政支援이 증대하는 만큼 高等教育에 대한 연방 정부의 發言權이 커져 政策樹立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함으로써 대학과 중앙 정부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2) 호주 高等教育의 發達過程

이 나라 高等教育은 19세기 후반 각 州의 수도에 설립된 6개 綜合大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大學體制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방 정부가 專門人力 양성과 필요한 研究 수행 때문에 高等教育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팽창하게 되었다. Anderson과 Eaton(1982)은 2차 대전 후(1945~1982) 호주 高等教育이 대체로 10년 단위로 발달되었다고 보고 이를 4단계로 나누어 그 특징들을 설명하였다.

① 再建期(1945~1955)

戰後 再建期에 이르러 연방 정부는 당시까지 州의 책임 하에 있던 大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때의 政策은 유능한 인재를 찾고 消費를 淸소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학생은 全日制 學生이었고, 研究의 대부분은 효과적인 學生選拔方法의 개발과 卒業比率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당시는 政治·經濟分野의 안정과 발전이 더욱 시급했고, 教育에 있어서도 일차적으로 義務教育 정비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高等教育은 후기에 이르러 약간의 관심만 기울였을 뿐이다. 大學教育

에 대한 관점도 全日制 學生을 위한 소수 정예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② 期待 및 擴大增進期(rising expectations and expansion: 1956~1965)

제전기를 지나면서 高等教育에 대한 期待가 증대되어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면서 高等教育 팽창기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聯邦政府는 大學發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서두르게 되었고 能力 위주의 獎學金 支援도 확대하였다. 이때 高等教育은 삶의 質을 높이는 手段이라고 인식하여 高等教育 탈락률의 淸소화에 주력하였다. 또한 定時制 學生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大學入試 基準을 높이거나 엄격한 定員制 시행을 강요하기보다는 教授能率을 높이고 學生의 學習成就를 향상시키는 등의 대책들이 강력히 촉구되었다. 大學의 研究도 이것에 역점을 두어 학생의 動機誘發, 학생 배경에 따른 社會的 要素, 學生福祉, 學習條件, 教授方法, 教授充員 對策 등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60년대말에 이르러 이른바 마틴委員會의 건의에 따라 종래의 綜合大學과는 다른 職業教育, 특히 技術教育을 위한 大學으로 CAE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연방 정부의 責任과 統制下에 운영되어 人力養成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③ 機會均等的 擴大期(1966~1975)

이 시기에 와서 大學은 비교적 안정된 位置를 찾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몇몇 綜合大學이 신설되었는데, 특히 CAE의 보급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CAE는 당초 技術應用과 그에 관련된 資格 획득 教育에 치중하면서 종합 대학 교육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으나, 점차 많은 젊은 층들이 정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그 기능이 보완되었다. 1968년 고등교육 인구의 25%가 CAE에 재학하고 66%는 綜合大學, 그리고 나머지는 6개 州에 있는 師範大學에 재학했다. 그런데 1972년에는 사범대학이 CAE 영역으로 통합되었고, 1975년 통계에 의하면 80개 이상의 CAE 기관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研究는 高等教育 機會의 均等に 초점을 두어 性別·社會階層·연령·民族的 背景에 따른 高等教育 수혜 비율의 차이 또는 그 성

공용의 차이 등을 규명하고 全日制 학생과 定時制 학생 간의 비교 연구도 수행하였다. 특히 高等敎育의 機會均等を 위해 1974년에는 수업료가 폐지되었고, 부모 수입이 적거나 스스로 학비 조달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財政支援 制度(tertiary education assistance scheme)가 채택되기도 했다. 그밖에도 敎育의 機會均等에 관한 研究報告書가 국가적으로 마련되어 必要에 根據한 大學財政支援이 권고되었으며, 弱少民族을 위한 보상교육 프로그램 시행도 촉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地理的으로 밀리 떨어진 곳의 젊은이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開放大學制度의 가능성 조사도 이때 이루어졌고, 몇몇 綜合大學과 單科大學에서는 통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성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었다.

이리하여 1973년경부터 증가된 고등교육 기관 재학생 수는 성인층 학생의 급증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만큼 성인층의 고등교육 참여 비율이 높아졌다.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70년대 중반부터 學生運動이 활발하게 되어 학생들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욱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의 여러 사항에 대한 意思決定에도 참여하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하였다. 이때 교육 평가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 많은 대학들이 期末試驗보다는 學期中 계속 평가제를 채택하였고,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單位學點制(unit)'를 도입하였다.

이 시기의 말기부터는 학생 인구가 여자, 성인층, 대학원 학생(석사)의 증가로 다양화되었고 中途脫落者의 원인과 소수민족 집단의 문제, 그리고 교수·학습과 평가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다. 또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이때부터 외국 유학생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④ 責務性 強調와 縮少期(accountability and decline : 1976~1982)

이 시기는 高等敎育의 縮少가 불가피하였던 특수한 때였다. 1970년 전반까지는 자금 증가와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풍부하여 高等敎育 機會가 확대되었으나, 고급 숙련 노동자를 양성하

려던 政府의 기대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차적으로는 經濟的 不安定과 失業率의 增加(특히 大學卒業者), 성인층과 문화적 소외 계층의 高等敎育에 대한 실망 등 주로 財政部門에서 그러한 제약이 뒤따랐고 나아가 다양한 학생 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려 할 때 이러한 제약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1972년 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高等敎育의 이념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즉 종래의 人間資本 형성으로부터 人間尊重 및 敎育課程 자체의 尊重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이 대학에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977년을 기점으로 종합대학과 CAE의 학생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8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5년 간의 減少期에는 20세 이하 男學生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大學卒業者의 就業은 어려운 반면, 유능한 젊은 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즉시 취업이 가능하였으므로 상급학교 진학 대신 곧바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高等敎育에 대한 직접적인 誘引策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유능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獎學金이 失業者에게 주는 恩澤보다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중 종합대학과 CAE가 경제적으로 더 큰 제약을 받았는데, 가령 1974~1982년까지 政府의 敎育費 支出은 9.4%에서 8%로 감소되어 종합대학과 CAE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TAFE에 대해서는 產業界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財政支援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것 또한 감소하는 추세였다. 高等敎育의 범주에 속하는 敎師敎育에서도 감소 현상은 뚜렷하였다. 1960년대 中等敎育이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大學卒業者의 대다수가 敎職으로 흡수되고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외국에서 充員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시 2~3년 사이에 과잉 공급 현상이 현저하게 되었다. 물론 당초에 인력 개발 계획에 따라 교사를 양성한 것이었지만 人口算定에 대한 부정확과 기술혁신, 경제 상황의 변화, 勞動運動의 발달과 정책 변화 등으로 이러한 차질이 초래된 것이다. 특히, 出生率의

감소와 경제적 제약 상황으로 教師의 離職率이 연 14%에서 3%로 감소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약간의 초과 공급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지원율은 감소하였다. 또 1970년 대말에는 젊은 층의 失業率 증가가 적절한 職業訓練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高等教育의 責務性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교수·학습 문제뿐 아니라 학과 및 교육과정 평가, 졸업생의 추후 연구 등 여러 가지 評價研究를 수행하고 아울러 教授要員의 開發과 教授法改革이 강조되었으며, 교수·학습의 환경 문제도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친 호주의 高等教育은 1983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改革을 꾀하면서 高等教育을 통해 국민 개개인과 기관 및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TEC, 즉 聯邦高等教育委員會는 1986년 高等教育의 能率性에 관한 연구인 「*Review of Efficiency & Effectiveness in Higher Education*」 등을 발간하였다.

2. 高等教育 改革을 위한 過渡的 現象

'80년대를 지나면서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함께 이 나라 高等教育은 새로운 주목을 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문제들이 노출되었다.

첫째로 당시까지 시행된 職業教育의 부적절성과 失業에 의한 환멸 등을 경험하기보다는 좋은 高等教育을 받도록 권장하는 분위기였다. 연방 정부는 州政府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高等教育 참여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青年政策이 政府의 최우선 과제임을 선언하여 이를 적극 支援하였다. 그리고 대학 진학자에게는 失業補償의 일환으로 2~3년간 特別手當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1982년 이후 全日制 學生數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85~1987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財政的 壓迫 때문에 새로운 高等教育 機關의 증설이 어려웠다. 따라서 유능한 進學 志願者 중 뜻을 이루지 못하는 수가 증대되었으며, 게다가 성인층의 高

等教育 需要도 감소되지 않음으로써 그 현상은 더욱 深化되었다.

둘째로 이 시기에는 數的 增大現象과 함께 高等教育에 대한 機會均等의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女性의 高等教育 參與가 확대되었는데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학에서 學者뿐만 아니라 行政家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으며 女大生 數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여성뿐 아니라 原住民 자녀들과 장애인, 저소득 계층 자녀, 농촌 자녀 등 열악한 여건의 학생들이 고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게 조사·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高等教育 機關의 構造的 變化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1960년대 CAE의 급격한 팽창에서 볼 수 있다. 學問研究가 주된 목적인 종합대학과는 달리 技術 또는 實業系大學인 CAE의 학생 수는 이미 전체 高等教育 대상자의 60%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首都中心 5개 技術大學, 州近在地 12개 및 地域(region)의 11개 多目的大學, 그리고 17개 專門人(specialist) 大學으로 구성되었다. 技術大學은 원래 科學·技術 위주였으나 점차 商科·實科 系統의 教育 中心으로 바뀌었고, 多目的大學은 주로 사범대학에서 발전된 것이어서 대부분 教師教育을 계속 수행하면서 保育教育 등을 실시하여 教育의 多樣化를 꾀하였다. 한편, 소규모 專門人 大學에서는 教師教育, 保健, 農業, 藝能 등 4개 영역에서 專門人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셋째로 私立 高等教育 機關의 증설과 이로 인한 外國人 유학생 數의 증가 문제를 들 수 있다. 원래 州政府 주도로 이루어지는 호주 고등 교육은 公立 學校教育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이때부터는 私立大學이 발달하게 되었고 특히 外國人 유학생의 증가가 이를 더욱 촉진하였다. 그 당시 외국인 유학생 15,000명의 약 75%가 私立大學에 재학하였다. 이들은 授業料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수업료는 大學의 歲入이 아니라 정부 세입에 통합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大學에 따라서는 學科別 定員이 엄격하게 지켜져 地方出身者의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했으므로 외국 학생은 定員外로 입학시켜야 한다는 논의

가 많았다. 그리하여 연방 정부는 학과 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외국인 학생의 수용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연방 정부는 각 대학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라 서부 지역에 私立 國際大學 設立이 提案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教授團體에서는 교수들의 근무 여건뿐 아니라 호주 高等敎育의 기본 원칙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넷째로 高等敎育 참여자에 대한 授業料 징수 여부의 문제이다. 1974년에 大學 授業料의 징수가 폐지되었으나, 그후 학생의 급증에 따라 高等敎育費가 대폭 증가되었다. 더욱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대학생의 社會的 構成比率이 뚜렷하게 바뀌지 않아 고등교육의 機會均等 실현이라는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지적되어 연방 정부가 1985년 수업료 재징수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열띤 찬·반논의가 이루어졌다. 찬성론자들은 政府가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低所得層에게 高等敎育의 機會를 갖도록 도와 주기보다는 진학율이 현저히 높은 高所得層을 돕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수업료 폐지가 분명히 高等敎育의 機會均等이라는 成果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가 재징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는 징수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大學敎育의 擴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연방 정부의 견해이지만 아직도 완전한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로 責務性 요구라는 분위기에서 대두된 大學敎育의 質的 向上과 効率性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投入·過程·産出의 3요소와 관련된 ① 대학에 대한 投資나 與件確保, ② 教授·學習 過程, ③ 개인과 사회에 대한 高等敎育의 기여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요소가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우선 투자와 여건 확보에 있어서 교육 투자나 學生定員 行政이 연방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연구비 또는 企業體의 研究支援도 부족하며, 연구의 質이나 內

容도 빈약하고, 교수들이 身分保障(tenured)이 된 노련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진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教授·學習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들이 自己成長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이고 그들을 위한 보수나 연구 여건, 후생 복지도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음으로 高等敎育의 공헌도에 있어서는 試驗으로만 敎育의 成敗를 확인하는 尺度로 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육과정, 교수법, 進級과 轉科制度, 기타 학생의 支援體制가 부적절하고 불충분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國家統合體制 改革運動

1) 概觀

이상과 같은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면서 高等敎育 전반의 綜合的 改革 분위기를 싹트게 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8년 연방 정부는 "Higher Education: A Policy Discussion Paper"라는 發展戰略 文書를 발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高等敎育 改革이 본격화되었다. 이 정책 진술서는 1987년부터 전국의 각계각층 기관과 조직을 대상으로 600여 통의 서신 반응을 구했고 광범위한 대학 현장 방문과 協議를 거치면서 成案되었다. 여기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改革아 이른바 '國家統合體制(the Unified National System)'이다. 이 개혁 운동에는 해당 高等敎育 機關과 聯邦政府가 합의하여 참가하게 되고, 政府는 특별 財政 支援으로 돕고 있다. 이 統合體制는 고등교육 기관들을 지역 또는 類似性에 따라 통합시킴으로써 敎育의 效果를 기할 뿐 아니라 運營의 機能性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기관 수는 줄어든 반면 대학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개설이나 學科 領域의 세분 또는 학점 교류 등에 있어서는 기관들 간에 한층 능률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改革은 고등교육 기관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敎育의 能率化를 꾀하고 財政的 効率化를 기하는 데 目的이 있다.

한편, 이 制度를 실시함으로써 필요한 제반 자

원들을 統合化 또는 集中化시킬 수 있어서 결국은 학생의 강의와 연구에 있어서 質的 向上을 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統合化는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平等化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多樣性을 높이려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강조된다. 즉, 궁극적 목적은 질적으로 우수하고 형평있는 교육 기관 체계를 갖추게 하여 각 기관이 독특한 강점과 특성을 지닌 學問 領域을 발전시키면서도 包括性을 띤 高等教育을 실시하는 형태로 調整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최대의 多樣性과 秀越性을 갖는 高等教育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統合體制는 결국 統一體制(a uniformed system)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統合體制에 참여한 기관들은 그 特性과 機能化에 기초하여 教授資源 및 研究資源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되어 있다. 教授에 있어서는 모든 대학이 教授(teaching)를 주된 활동으로 하지만, 研究活動에 있어서는 대학의 特性的 機能에 따라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모든 專門 領域에 대해 일률적으로 研究費를 지원하지 않고 여러 프로그램 중 그 機能성이 두드러진 것에 대해서만 資金을 支援한다. 또 統合體制에 참여한 대학들에게 연방 정부가 무조건 資金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教授活動 또는 研究活動에 따라 契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會員大學으로 志願하는 데 있어서는 大學 運營이나 學點交流, 教授要員 확보 또는 통일된 學年初와 學期末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의 노력을 한다는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이 사항들에 대해 수립한 目標을 달성해야 할 책임은 이에 관여한 대학이 스스로 져야 하며, 연방 정부의 장기적 관여는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는 원리도 함께 반영되고 있다.

더욱이 大學間 衡平(equity)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대학들은 統合體制 운동에 가입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質的·量的으로 여러 목표를 세우거나 수정해야 할 영역인 衡平性에서뿐만 아니라 會員大學 가입에 있어서 노력해야 할 중요 사항은 대학별 교육 프로파일(educational profiles)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정식 會員大學이 되기 위해서는 大學

이 최소한 2천 개의 全日制 學生 履修單位(EFTSU: equivalent full-time student units)를 最低 學生 負擔(a minimum substantial student load)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에 미치지 못한 대학은 규모가 큰 대학들과 公式的 作業協力 體制를 만들어야 하며, 큰 대학은 이들 대학을 대신하여 연방 정부와 적절한 교육 프로파일 및 연합적인 財政 調整 등에 관해 타협하도록 하고 있다.

2) 教育 프로파일

聯邦政府和 國家統合體制 會員大學 간에 합의하여 大學의 機能이나 役割을 규정하는 주요 수단인 연방 정부의 財政 支援을 받는 기준이 되는 교육 프로파일은 모든 회원대학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1989~1991년까지의 기간중에 이용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각 대학이 먼저 開發 하되, 이 속에는 대학의 광범위한 使命과 責任을 규정하고 대학이 수행한 특성있는 活動領域과 目的이 설정되어야 한다. 대학들은 이 프로파일 案을 통해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大學의 使命과 目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資金을 算定하고 그 實現結果를 평가하는 基準을 수립함으로써 최종 프로파일을 확정한다. 이 프로파일은 ① 대학의 광범한 使命과 目標, ② 학생의 履修單位(EFTSU)나 學位 및 卒業 등 교수 활동의 상세한 범위, ③ 진행중인 研究活動과 연구 운영 계획, ④ 衡平性 등 국가적인 優先 達成事項, ⑤ 기타 重要活動과 수행 사항, ⑥ 연간 소요 재정 규모 등에 걸쳐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교육 프로파일은 대학이 公的 資務性에 따라 모든 사항을 自主的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自由를 균형있게 해주는 機制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 프로파일은 특정 대학의 운영에 관한 骨格이 되고, 종합적으로는 高等教育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범위를 나타내 준다. 한편, 대학 측에서 보면 대학 자체 운영 계획의 기본이 된다. 연방 정부는 대학과 협의하여 교육 프로파일에 포함된 모든 要素들이 실현되도록 資金支援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대학의 活動과 目的 그리고 成果의 測定 등에 관해 합의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3) 課程別 修學期間과 學位의 調整

國家統合體制 改革運動에서는 대학의 여러 課程 履修에 따른 修學期間과 學位에 관한 조정도 꾀하고 있다. 이러한 調整은 이들 課程 이수에 있어서 적절한 기간을 확보하고 課程의 수준을 격상시키며, 나아가 高等教育 機關과 유사한 과정들의 형식과 기간을 일관성 있게 조절해야 할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聯邦 雇傭教育訓練委員會(NBEET)의 검토를 거쳐 과 정별 修學期間과 그에 따른 學位가 조정되었다. 기본적인 學位種類는 8가지로서 어소시어트 디 프로마(全日制 2년), 디프로마(全日制 3년), 一般學士(全日制 3년), 專門學士(全日制 3.5~6년), 名譽學士(全日制 4년), 상급(postgraduate) 디프로마(全日制 1년), 碩士(全日制 2년), Ph. D(全日制 4년) 등이다.

이외에도 대학원에서 약 6개월 全日制 敎育을 받은 사람에게 大學院 履修證(graduate certificate)을 주는 學位제도 생겼고(1988), 다른 몇몇 特別課程 또는 研究課程에 대해 연방 정부는 이미 활용되어 온 표준적인 案을 기초로 하여 호주 敎育委員會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이용할 學位 骨格을 마련하도록 위촉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 정부는 NBEET에 의뢰하여 會計學·工學·醫學 등 承認된 다른 專門課程이나 연구 영역에 대해서도 現行의 것을 근거로 하여 最長 修學 期間과 學位 類型에 관해 조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장차 이 모든 사항에 관해 사례별로 그 標準 修學 期間과 學位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助言 또는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 대학은 승인된 敎育 프로파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課程을 선택·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운동들이 일단 國家의 基準에 도달하게 되면 財政 支援을 점차 줄여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은 필요에 따라 특정 專門課程에 있어서 보충 프로그램 또는 非學位課程을 자유롭게 설치하는 政策도 시행하고 있다.

4) 業績評定制(accreditation)

기존의 과정들에 대한 評定制는 一貫性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되었다. 종합대학은 전통적으로 自體 課程에 관한 評定 責任을 스스로 지게 되어 있고 단과대학은 대개 州 評定機構의 業績評價 節次에 의해 평정하게 되어 있다. 연방 정부에서는 統合體制 會員大學은 연방 정부나 州政府 또는 地域政府에서 합의한 原理나 節次에 따라 自體課程에 대한 評定 責任을 지게 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 評價節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① 새로운 課程의 評定 및 기존 課程의 週期的 再評定
- ② 學問集團, 雇傭者集團 및 專門團體 등의 外部 評價者의 참여
- ③ 課程 運營의 책임이 있는 敎授의 資質과 業績 및 가동중인 시설의 效率性과 適切性
- ④ 最低 入學基準 및 성취해야 할 資質 水準
- ⑤ 課程의 修學期間과 學位의 전국적 기준 도달

5) 學點 및 學點交流

위에서 언급한 政策陳述書에서 연방 정부는 高等教育 體制內에서 또는 TAFE와 高等教育 간에 행해지고 있는 現행 學點交流制에는 浪費의 要素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에 대해 광범한 시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政策陳述書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원리들이 학생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으나, 아울러 이것이 學問의 質과 大學의 自律性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 ① 인정된 學點을 취득하지 못한 責任은 학생이 아닌 大學當局에게 있다.
- ② 인정된 대학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람에게 學點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전통적으로 수준이 낮은 大學敎育 對象, 특히 TAFE 學生集團에게는 쓸모가 없거나 그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다.

③ 學點編制에 관한 改善은 中央機構에서 관

로적으로 단행하는 것이 아니고 該當大學에서 수행해야 한다. 즉, 대학이 학생들에게 허용할 학점 수준을 결정하는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指針과 節次를 개발해야 한다. 한편, 大學間 學點交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學點을 취득한 대학의 교육과 學點을 受容하는 대학의 課程이 갖는 構成要素가 같을 경우 자동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둘째, 學點交流 志望에 관한 評價에 있어서는 學點을 수용하는 대학에서 轉入學生이 타대학에서 취득한 學點을 최대한 허용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學位授與 大學은 그 대학 學位의 質을 보장하기 위해 그 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요구 학점을 규정해야 한다. 넷째, 高等教育 機關과 TAFE 機關 간에는 高等教育 課程으로 인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TAFE 과정들의 學點交流 方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協議해야 한다. 다섯째, 각 대학은 TAFE 등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들을 인정하는 學點範圍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수한 특정 과목의 학점이 受容 심사에서 승인되지 않았을 때 그 결정에 대해 再審請求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방 정부는 각 대학에서 채택한 상세한 조치들에 관한 學點認定規程集을 간행하고 실제로 學點認定 또는 拒否 사례들이 보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현행 學點交流의 제약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대학 스스로도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學點을 어느 정도 승인해 줄 것인가 사례별로 일일이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켜 준다는 이점이 있다. 또 이러한 學點交流制가 더욱 効率性이 있을 경우 TAFE 디프로마나 어소시어티브 디프로마 등의 課程에까지 확대시킬 수 있고, 高等教育 機關의 夏期學期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6) 私立 高等教育機關의 位置

政策陳述書에서 제기된 또다른 改革事項은 사립대학을 호주 高等教育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인

정한다는 조치이다. 예를 들면, 3개 私立 사립 대학과 1개 농업관리대학이 중앙 행정 당국의 결정에 따라 특정 과정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公共財政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연방 정부는 이미 지원받고 있는 과정들을 契約에 따라 확보된 財源으로 지속적으로 支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사립대학이 國家統合體制의 會員이 되지는 않는다. 또 빅토리아州와 뉴 사우스 웨일즈州에 私立 가톨릭教育大學 및 가톨릭師範大學이 있으나, 이들은 州法律에 따라 설립되었고 현재는 財政 確保 目的 때문에 公共 高等教育 體制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가입 요건을 갖추게 되면 國家統合體制의 회원으로 가입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私立大學의 설립 결정은 원래 州政府 소관이던 연방 정부는 직접적으로 私立大學의 發展에 영향을 줄 수 없고 海外投資나 비자 발급 요건과 같은 政策實現을 통해 영향을 주는 立法的 권한만 갖고 있다. 연방 정부는 새로운 私立 高等教育 機關의 건립에 있어서 教授·研究센터나 特別研究센터와 같은 大學發展을 위한 直接的인 財政援助는 받지 못하게 하는 政策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 정부의 學生援助基金(AUSTUDY 및 ABSTUDY)은 연방 정부 資金으로 운영되는 과정의 학생들에게만 계속 보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研究基金은 實績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배당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政策은 계속될 것이어서 사립대학 교수도 개인 자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의 大學院課程基金은 1989년까지는 聯邦政府 高等教育 資金을 받는 대학의 개인에게만 지원하고 그후에는 研究領域別, 課程과 研究 프로그램간 또는 機關割當制가 아니라 特殊研究센터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7) 遠隔教育의 強化와 改善

호주에서는 高等教育 發展과 機會의 均等化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영역이 遠隔教育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政策陳述書에서도 중복을 피하고 教育機關間 協力을 조장하며, 遠隔教育 課程의 전반적인 質과 機能 및 効率性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提

案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격 교육의 확대와 교육 기회 확보가 더 많은 사람이 大學에 가도록 유인하는 기본 요건이라 보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975년 이래 원격 고등교육 대상자는 18,000명 이하에서 48,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高等教育 대상자의 6.4%에서 11.5%로 증가했다. 개인 사정상 修學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에게 大學教育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특히 成人學生에게 매력을 주어 1987년의 경우 遠隔教育 대상자의 80% 이상이 25세 이상이었으며, 전체 高等教育 대상자의 1/4 이상이 이 연령층에 속하였다. 또한 農村이나 벽지에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교육 수단이 된다. 결국 원격 교육은 연방 정부가 꾀하는 高等教育의 유일한 機會均等政策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벽지 사람들을 위한 遠隔教育 機會擴大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遠隔教育網가동 효과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1987년 현재 전국에 48개 遠隔教育 機關이 있으며 그중 5개 기관이 거의 半數의 학생을 수용하고 27개 기관에서는 전체 4,800명, 평균 1개 기관에 200명 이하가 재학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학들은 自體的으로 교육 자료와 학생 복지책을 개발하게 되어 있어서 정부는 이러한 방법이 교육적으로나 능률 면에서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遠隔教育의 質은 흔히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수료자의 資格을 正規 大學卒業者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며 그 質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방면으로 6개 원격 교육 센터에 대해 특별 資金支援을 하여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教材 개편과 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수행하도록 경쟁적 자금 배정을 하고 있다. 교재는 패키지(package) 식으로 개발하며 교수 방법은 교과에 따라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技術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遠隔教育은 學部教育에 그치지 않고 技術研修와 大學院教育, 나아가 生涯教育의 차원에까지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4. 教師教育의 改革

호주의 教師教育은 길게는 20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기간의 절반은 英國의 徒弟制度 형식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教師教育은 초기 綜合大學의 발달에 근원이 되었다. 별도로 師範大學이 설립되면서는 전자에서는 주로 중등 교사를, 후자에서는 초등 교사를 양성하면서 '60년대까지 계속되었고, 그후 教師養成 制度에 많은 변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養成教育은 종합대학과 CAE 중심의 단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단과대학에서는 3년 동안 주로 유아 및 초등 교육 教師를 양성하나 음악·미술·체육 등 실기 과목 中等教師의 대부분과 一般教科 中等教師 일부를 양성하기도 한다. 종합대학에서는 科學·社會科學 및 人文科學 분야에서 學士學位를 취득하고 1년간 교육 관련 교과를 이수한 후 教育資格證(diploma of education)을 받고 中等教師가 되며, 일부 종합대학에서는 유아 및 초등 교사에게도 학사학위와 교육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採用은 전적으로 해당 教育行政 當局이 決定權을 가지고 있어서 公立인 경우 州 또는 地域教育委員會에서, 私立인 경우 해당 宗教機關이나 學校에서 결정하게 된다. 대개 1년 간의 예비 기간(probation)을 두어 근무 성적을 평가한 후 정식으로 임명하고 있다.

한편, 現職教育은 다양하여 자급 학교, 교사센터 또는 교육센터, 대학, 州教育委員會나 教區 등에서 널리 실시한다. 1970년 중반까지는 採用 單位別로 구체적인 教授方法 改善에 관련된 단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종합대학에서 研究中心으로 석사과정을 통해 실시하여 왔다. 그런데 1970년 이후에 새로운 원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3년제 이수자들이 교육학사 자격을 얻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하였고, 둘째로 교사의 관심 영역인 교육과정이나 評價 등의 영역에서 석사과정이 開設되어 높은 專門性을 지닌 教師要員의 수요가 컸으며, 셋째로 教育行政 當局이나

고용 기관에서 교사의 專門的 成長은 生涯的 課題라는 인식이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教師教育 改革에 관한 시도는 1980년 전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예를 들면 1979년 聯邦政府가 '教師教育調查委員會(National Inquiry into Teacher Education)'를 조직하여 발간한 研究報告書(「Auchmuty」, 1979)를 비롯하여 1984년 '敎職成長調查(inquiry into professional development)'를 통해 시도되었으며(Coulter & Ingvarson, 1984), 1986년 CTEC와 CSC가 공동 연구한 "敎師教育에 관한 共同報告書"(CTEC/CSE, 1986)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敎師要員의 선발을 비롯하여 그들의 養成 및 現職教育에 관한 改革뿐 아니라 敎職成長을 위한 대표 기구의 신설과 財政支援,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 등에 걸친 광범한 改革案을 제시하여 아직도 추진중에 있다. 현재 뚜렷하게 진행중인 몇 가지 사례는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機關의 多樣化와 統合化

호주의 현행 敎師教育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AE와 종합대학에서 실시되는데, 전자는 幼稚園 및 初等學校 敎師를 양성하고 후자는 中等敎師의 양성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큰 變化가 초래되고 있는 것은 CAE이다. 근래에 와서 敎職의 安定化로 이직률이 연 3~4% 수준에 머물게 되어 敎師需要가 크게 낮아지자 이에 대한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敎師養成이라는 單一目的의 대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敎育을 실시하는 多目的 大學으로의 改編이다. 敎師養成뿐만 아니라 여러 職系 및 技術 영역의 敎育으로 확장하고 大學院 과정과 現職敎育에까지 적극 관여하는 기관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 다양화 현상은 '70년대에 師範大學이 CAE에 흡수되면서 이미 시도된 것이다. 多目的의 大學으로의 개편은 敎師敎育의 능률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經濟的 및 組織的 측면의 이유 때문이다. 敎師 養成이라는 單一目的의 大學일 때는 입학시부터 분명한 職業意識을 지니고 敎育에 임하고 大學도 그것을 受容하여 적극 支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敎育과정도 일관성 있

게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敎育實踐도 필수 요건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그것이 지닌 弱點으로는 기술, 컴퓨터 또는 예술 등 여러 분야의 직업 훈련에 공통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인데, 특정 직업 敎育을 받다가 다른 직업 敎育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고 실제 敎育에서 學問的 支援를 강력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統合體制 改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한 가지는 서로 독립된 CAE들이 통합되어 규모가 큰 多目的 CAE로 발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CAE와 종합대학이 통합되어 더 크고 광범위한 綜合大學校로 발전하는 경우이다.

첫째로 CAE 간의 統合은 한층 융통성 있는 대학이 되어 과거와 같이 敎師養成 敎育에 치중하던 모습을 탈피하려는 目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에 의해 敎授要員의 專門性이 더욱 多樣化되고, 가동 시설의 범위도 한층 확대되어 敎科領域의 설치 범위가 커지게 되었고, 나아가 行政上의 費用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効果는 범 기관 단위로 계획하고 서로 협력하여 운영상의 약점이나 非經濟性을 제거하는 등 명백히 결정된 政策이나 우선 순위에 근거해서 資源을 조직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둘째로 CAE와 종합대학 간의 統合은 대표적으로 James Cook, Tasmania 및 Wollongong 등 3개 綜合大學校에서 이루어졌는데, 후속적으로 몇몇 지역에서도 추진중이다. 이 통합화에 있어서 그 成果는 모든 資源을 어떻게 組織化하느냐에 달려 있다.

2) 敎師의 專門的 成長

최근에 볼 수 있는 또다른 改革은 敎師의 專門的 成長을 위한 것이다.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行政 단위 또는 養成機關 단위로 실시되던 敎師 成長 프로그램을 一線學校 단위로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敎師職級別로 이러한 成長策이 강구되고 있지만, 특히 主任敎師(senior teacher)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이 활발하다. Tasmania 州의 ‘主任教師成長計劃’을 보면 1주 간격으로 1주일씩 1년에 3회에 걸쳐 특히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행정 영역 등에서 기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기간중 1주간의 현장 복귀 기간에는 개인별 과제를 수행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州의 現職教育 프로그램들도 이와 유사하다.

1987년 Hughes가 작성한 “더 좋은 學校의 더 좋은 教師(better teachers for better schools)”라는 報告書에는 더 많은 개혁 사항이 지적되어 있다. 우선 教師職은 일생 동안 專門的 成長이 지속되어야 할 직업이라는 점과 教師教育의 質은 教師의 質을 좌우하므로 教師養成 또는 再教育 教育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이 부분에 관한 각종 教師 成長 現職教育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 教師의 專門的 成長은 州政府뿐 아니라 고용 기관과 敎職訓練 機關 및 教師 모두의 共同責任이라는 인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현직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제반 法規나 規程의 정비에도 관여하고 있다. 특히, 社會와 時代 그리고 學校의 變化에 맞추어 이런 目標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學校 단위의 現職教育이 敎師의 敎授效果를 높이는 데 있어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책들이 州, 고용 기관, 教育機關 및 該當學校가 협력하여 開發·利用하고 있으며 필요한 財政의 뒷받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現職教育의 成果는 養成教育과 잘 연계될 때 높아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능률적인 新任教師 양성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아울러 養成教育과 現職教育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 방안들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무엇보다 教師의 成長과 發展을 위해서는 敎職에 관한 研究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이를 위한 物質的·心理的 支援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教育機關과 고용 기관 간의 연대가 밀접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고용 기관, 특히 州政府의 文教部가 教育機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大學의 敎師教育機關 운영위원회에 代表를 파

견하거나 業績評價 또는 자의적인 採用規程이나 節次를 마련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教育機關의 반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敎師의 供給 과정과 卒業者의 자등 配置制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고용 기관의 관여는 상호 연계라는 차원에서 용납되고 있다.

3) 業績評定

또다른 改革은 일반 高等教育에서처럼 敎師教育 成果에 관한 業績評定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教育機關의 養成 및 現職 教育 프로그램 效果를 評價하여 教育의 質的 向上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CAE는 대체로 州教育委員會가 조정하는데 먼저 해당 CAE가 自體報告書를 만들어 業績評定을 自請하면 5~6명의 CAE 외부의 委員으로 業績評價委員會를 구성한다. 이 委員會에서 자체 보고서를 평가한 후 그 기관을 訪問評價하고 人力, 施設, 財政 및 教育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의 영역에서 質의 사항을 제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종합대학은 아직도 自體 業績評定の 일환으로 教師의 養成 또는 現職 教育 프로그램 등 필요한 업적을 평가하는데, 주로 미국 NCATE(National Council for the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의 방식으로 敎科課程을 평가하고, 영국 방식에 의해 敎授法과 評價方法 등을 평가하고 있다.

養成教育뿐 아니라 現職教育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教育現場의 필요를 확인하여 이에 비추어서 실제적인 사항을 위주로 평가한다. 이러한 業績評定은 때때로 개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공동으로 수행된다. 최근의 敎師教育 業績評定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흐름은 학생들이 수강 과목의 業績評定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學生參與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다.

4) 기타 改革事項

지금까지 열거한 敎師教育 改革 이외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일반 高等教育에서처럼 養成教育은 물론 특히 現職教育의 수단으로 遠隔教育(distance education)을 점점 많이 이

용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情報技術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다. 원격 교육은 주로 종합대학에서 시행되나 모든 종합대학이 아니라 신별된 곳에서만 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資源의 確保와 交流에 관한 새로운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財政的·物理的 資源의 확보와 활용이 절 높은 教師教育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데 각 州, 機關 그리고 市民이 인식을 같이하고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資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教師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充員하고 訓練하는 代案들이 제시되고 있다. 學究의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사람이 반드시 교사로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教科遂行 能力이 바람직한 교사의 평정 척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젊은이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資源의 共同活用 또는 交流에 있어서는 정보와 아이디어는 물론 教育課程 資源 또는 施設의 共同利用 및 交流에 관한 운동과 방안들이 강력히 제시되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와 학교 간에서만 아니라 학교와 양성 기관 및 행정 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호주의 高等教育 改善은 연

방 정부 주도 하에서 國立統合體制 운동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현재 改革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

〈参考文献〉

- APEID, *Innovations and Initiatives in Teac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Vol. 1 (overview), UNESCO, Bangkok, 1990.
- _____, *Innovations and Initiatives in Teac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Vol. 2 (Case Studies), UNESCO, Bangkok, 1990.
- "Higher Education—A policy (discussion paper)", circulated by J.S. Dawkins, MP (Minister for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Dec. 1987.
- "Higher Education—A policy statement", circulated by J.S. Dawkins, MP (Minister for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July 1988. UNESCO, *Education in Australia*, unpublished manuscript, PROAP, 1990.
- 吉井弘 譯, 「オーストラリアの教育」, 勁草書房, 1990.